

8. 대구광역시 문화도시 조성 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제출일자 : 2019년 9월 6일
- 발 의 자 : 강민구 의원, 이시복 의원, 김태원 의원, 김성태 의원,
김지만 의원, 김혜정 의원, 이만규 의원, 이진련 의원,
전경원 의원, 하병문 의원, 황순자 의원
- 회부일자 : 2019년 9월 9일
- 상정일자 : 제269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
문화복지위원회(2019년 9월 20일) 원안 가결

2. 제안설명 요지(제안설명자 : 강민구 의원)

□ 제안이유

- 본 제정조례안은 「지역문화진흥법」이 2014년 제정·시행됨에 따라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통해 대구를 문화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,
- 2019년 중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하는 ‘문화도시 지정 사업’을 뒷받침할 제도적인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.

□ 주요내용

- 문화도시 조성 목적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(안 제1조~제2조)
- 문화도시 환경조성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- 문화도시 조성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- 문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- 문화도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6조~제12조)
- 문화도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13조~제14조)

3. 검토보고 요지(보고자 : 전문위원 김창업)

□ 주요 검토사항

-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본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, 해석이나 집행상의 저촉을 방지하기 위해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으며,
- 안 제3조에서는 문화도시 환경조성을 위해 지역의 문화적 특색을 살려 도시개발을 수행하고, 정책 수립 시 지역 고유의 문화자원을 발굴·활용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.
- 안 제4조에서는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, 이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·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, 안 제5조에서는 문화도시 조성관련 사업에 대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- 안 제6조부터 안 제12조까지는 문화도시 정책의 소통 및 확산을 위해 ‘문화도시위원회’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,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.

- 문화도시위원회는 민간과의 원활한 소통과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시민참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,
- 문화도시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, 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문화도시위원회의 의결사항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- 안 제13조와 안 제14조에서는 문화도시 조성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‘문화도시센터’를 설치·운영할 수 있으며, 센터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 및 예산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- ※ 「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 제5조 제4호에 따라 민간위탁이 가능한 사무로 판단됨.

□ 검토결과

- 본 조례안은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과 문화도시 사업 지원근거, 문화도시위원회와 문화도시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문화도시 조성과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나 타당성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.
-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「지역문화진흥법」 제정(2014. 1. 28.)으로 문화도시 지정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2018년부터 문화적 기반과 역량을 갖춘 도시를 대상으로 ‘문화도시 지정 사업’을 추진하고 있으며, 금년 말 5~10개 내외를 지정하고, 2022년까지 30개 내외의 도시를 문화도시로 지정하여 지원할 계획임.

- 대구는 2015년부터 대명공연거리 활성화, 지역기반 공연예술작품 제작, 뮤지컬분야 청년인재 육성 등 <공연문화도시 조성 사업>을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해오고 있으며, 2018년에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승인받아 금년에 <문화도시 생태계 네트워크 육성 사업> 등 예비사업을 추진 중임.
- 본 조례의 제정으로 문화도시 구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보다 체계적이고 일관된 문화도시 정책 추진이 가능할 것이며, 금년 말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도시 지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.
- 다만, 100명 규모의 위원회 운영은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문화도시를 만들어 간다는 의미와 다양한 의견수렴이 가능하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, 효율적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소위원회의 적절한 운영으로 민간 주도의 문화도시 조성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해야겠으며,
- 금년 말 문화도시 지정 신청 전에 완료되어야 하는 문화도시 전담기구 구성, 문화도시위원회 설치 등의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여 문화도시 지정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하겠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 의	답 변
본 조례가 문화도시 지정에 상당한 뒷받침이 되는가?	문화도시 지정의 중요요소 중 하나임.
위원회 구성 시 불협화음 없이 잘 운영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.	그렇게 하겠음.

위원회 구성 시 연령층을 골고루 할 필요가 있음. 청년층을 많이 포함시키기 바람.	그렇게 하겠음.
문화도시센터를 설치·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다른 도시에서도 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가?	제주, 원주 등의 도시에서 운영 중임.
센터 설치·운영은 예산이 수반되므로 잘 검토하기 바람.	그렇게 하겠음.

5. 토론요지

- 없음.

6. 수정안 요지

- 없음.

7. 심사결과

- 원안 가결(재석의원 전원찬성)

8. 소수의견 요지

- 없음.

9. 기타 필요한 사항

- 없음.